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18년 8월 24일(금)
(음력 7월 14일)

Пятница
24 августа 2018 г.
№ 33(116800)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지난 18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광복 73주년, 남부사할린과 쿠릴열도 해방 73주년 기념행사가 펼쳐졌다. 한국 국립국악원 기악단과 <에트노스>예술학교 학생들이 <길놀이>를 즐기는 모습. (관련 기사 2면) (이예식기자 촬영)

제8회 사할린국제영화제 8월 24일 개막 올해도 한국 인기영화 상영

연례적으로 8월 말에 개최되는 <세계의 끝(크라이스웨타)> 사할린국제영화제가 올해 8월 24일 19시 15분에 유즈노사할린스크 체호브센터에서 개막된다. 이에 앞서 레드카펫은 18시 30분에 펼쳐질 것으로 전해졌다.

제8회 사할린영화제 심사위원회는 타미엑스 밀라니 감독(이란)을 위원장으로, 알렉세이 포포그렙스키 감독(러시아), 알렉세이 게르만 감독(러시아), 마리아 숙시나 배우(러시아), 오정미 시나리오 작가(한국)로 구성되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올해 프로그램에는 사할린영화제 역사상 최대 120여 편의 영화가 구성되었다고 한다.

이번에 경쟁프로그램에는 9편의 영화가 올랐는데 러시아 영화 외에 한국, 중국, 일본, 그루지아, 덴마크, 스웨덴 등 작품들이 출품되었다.

한국 같은 경우 경쟁 부문에 한국·덴마크 합작한 영화 <회귀>(감독 최 말레나)가 출전했다. 이 영화는 덴마크로 입양된 청년들이 처음 부모를 찾아 한국 방면에 대해 이야기한다. <회귀>는 8월 27일(월) 19시 체호브센터에서,

28일(화) 오전 11시 <옥차브리>영화관에서 상영된다.

한국영화는 <이웃/친구>란 프로그램에서도 소개된다. 한국영화 중에 가장 잘 알려진 <택시운전사>(감독 장훈)다. 2017년에 개봉된 이 영화의 누적관객 수는 12,189,195명(2018.07.06, 역대 10위,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 역대 영화 순위에 올랐다고 한다. <택시운전사>는 8월 25일(토) 15시 <옥차브리>영화관에서, 27일(월) 21시 체호브센터에서 상영된다.

아직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개봉되지 않은 <살아남은 아이>(감독 신동석, 개봉 8월 30일)영화도 사할린영화제에서 볼 수 있다. 상영시간은 25일(토) 19시 30분(<콧소몰레츠>영화관), 27일(월) 15시 30분(<옥차브리>영화관)이다.

알렉세이 페드웨제브 사할린영화제 프로그램 총책임자는 <이웃/친구>프로그램 중에서 중국 작품 <Operation Red Sea(붉은 바다 작전)>를 록버스터(감독 단테 람)가 재미있다고 강조했다.

(7면에 계속)

한국선수 11명, 사할린 익스트림 하드엔듀로 레이스에 참가

No Place to Run(노 플레이스 투 런) 익스트림 하드엔듀로 레이스(극한의 지형과 상황을 극복하는 하드코어 모터사이클 레이스)가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사할린에서 펼쳐진다. 이 경기에는 러시아의 모스크바·크림·블라디보스토크·하바롭스크·우수리이스크·사할린, 그리고 한국 선수 총 60여 명이 참가한다고 전해졌다.

이번 경기에 출전하는 한국 선수 11명은 지난 21일 사할린에 내도했다. 선수단 단장인 권대명 선수는 "한국에서는 보통 단일경기만 한다. 선수단 전원에게 러시아 사할린 경기는 처음"이라며 "우리 선수 모두가 이번 3일 경기에 참가하고 끝까지 마지막 피니쉬 지점까지 완주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선수 중 두 명은 한국 챔피언(류명걸, 윤근홍)이라고 권 단장이 알렸다.

주최 측에 따르면 프롤로그(장애물 경기)는 <사할린의 날개>대축제의 일환으로 24일(금) 푸시스티 비행장에서 열린다. 다음날부터 3등급으로 나뉘어진 코스를 선수들은 이틀에 걸쳐 숲속과 개천, 늪과 옛 철도터널, 험한 언덕 등의 복잡한 코스를 밟아야 한다. 이들의 본격적 경기 첫날에는 160-170 km, 마지막 날에는 100-110km 코스를 질주한다.

한편 올해 5회째를 맞이한 사할린 익스트림 하드엔듀로 레이스는 난이도가 점점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본사 기자)

단신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총회, 제1 <아시아의 아이들>국제동계대회 준비 문제 심의

지난 18일(토)에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이 열렸다. 이번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소속 45개국이 모두 참가해 1만1300여 명의 선수단이 40개 종목, 465개 금메달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는 아시아 대륙의 스포츠를 총괄하는 유일한 기구로 아시아 대륙 45개국의 올림픽위원회가 가입되어 있어 이 기구가 아시안 게임을 주관하고 있다. 현재 쿠웨이트의 국제 올림픽위원회 위원인 셰이크 아흐마드 알 파하드 알 사바가 회장을 맡고 있다.

이번에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총회에서는 2019년 사할린에서는 처음 진행될 <아시아의 아이들>국제동계스포츠대회 준비과정의 과제도 심의했다. 심의 결과를 사할린주정부 안톤 자이체브 부수상이 보고했다.

현재 첫 <아시아의 아이들>대회에는 25개 팀(약 1500명)이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할린향토박물관, 러·한 학술 세미나 개최

8월 28일(화) 사할린주 향토박물관에서 2018 러·한 국제학술세미나가 개최된다. 세미나 부제는 환동해 문명사를 통해 본 영토문제 - "환동해, 바다를 통한 평화와 협력"이라고 전해졌다. 세미나는 사할린주 향토박물관과 (재)독도재단의 공동주최로 진행된다. 학술회에는 경상대학교 신재열 교수 "환동해 지역의 지리적 가치와 중요성: 극동 러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송희영 교수는 "동아시아 해양문화와 영토문제", 사할린주 향토박물관 선임연구원 진 율리아 박사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과 미국의 관계가 동북아시아 국경문제에 미친 영향", 주향토박물관 학술회장부장 타치야나 차이첸코는 "2차 세계대전 결과 재논의(영토 논쟁)"란 주제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할린, 전 러시아장애인회 30주년 기념

지난 21일(화) 유즈노사할린스크 <로지나>문화회관에서 전 러시아장애인회 30주년을 기념했다. 이날 행사에는 코르사코브, 돌린스크, 포로나이스크, 노글리키와 유즈노사할린스크 장애인회 회원들이 참가했는데 이들에게 사할린주정부 웨라 셰르비나 수상을 비롯한 주·시 공식 인사들의 환영 및 축하 후 기념공연이 있었다.

전국장애인회는 1988년 8월 17일 설립됐으며 현재 전국 회원 수가 150여만 명이다. 사할린에는 현재 장애인 수가 2만여 명에 달했다.

새고려신문

2018년 신문주문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18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계속 할수 있을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1개월 구독료는 79루블리 38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53740입니다. (본사 편집부)



8.15광복절 기념 남북공동 공연

'분단을 넘어선 평화와 번영을 기원'

지난 18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광복 73주년, 남부사할린과 쿠릴열도 해방 73주년 기념행사가 펼쳐졌다.

이날 <우정의 날>로 기리는 해방절은 <영예>광장 성화에 하는 헌화로 시작되었다. 헌화에는 사할린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을 비롯 사할린한인단체 관계자, 주유즈노사할린스크한국출장소 황명희 소장, 사할린한국교육원 김준환 원장, 한국 국립국악원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통일음악단 대표 등이 참가했다.

이날 <우정의 날>축제마당은 '러시아는 나의 역사' 박물관 앞 광장이었다.

한국 국립국악원 기악단과 남도국악원 무용단은 그동안 국립남도국악원과의 전통문화체험 사업으로 교류가 있었던 <에트노스>예술학교 학생들과 함께 팽과리와 북, 나발로 요란스럽고도 흥겹게 행진하는 '길놀이'로 개막을 알리며 성탄 성전 앞마당에서부터 공연장 마당을 돌아 광장에 모인 4천여 명의 관객들에게 흥을 돋우었다.

본격적인 공연에 앞서 사할린주 안톤 월로쉬코 제1부지사,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시장 대행 나탈리아 쿠프리나, 사할린주두마 안드레이 하포츠킨 의장, 사할린주 민족연합회 마이야 키릴로와 등이 축사를 전하며 강제징용된 한인들, 그 후손들이 사할린에 잘 정착하여 이곳에 수많은 민족들과 사이 좋게 지내으며 성공한 사람도 많다고 강조했다.

주 블라디보스톡한국총영사관 사할린출장소 황명희 소장은 이번 대한민국 8.15광복절 기념식에서 발표된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 중 내용 일부 발췌하여 대독했다. "광복 73주년이자, 대한민국 정부수립 70주년을 맞는 매우 뜻깊고 기쁜 날"로서 경제성장과 민주발전을 동시에 발전시켜온 대한민국은 "이제 운명을 스스로 책임지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향해 가고 있다."며 "분단을 극복하고 남북 간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로이 오가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광복"이라고 전하고 분단을 넘어선 평화와 번영을 기원했다.

사할린주한인회가 주최한 이번 광복절 행사에 남과 북의 아티스트들을 초대해 남측 '국립국악원'과 북측 '통일음악단'이 함께 하는 공연무대를 마련했다.

환영사를 하면서 이 사실을 알린 사할린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은 73주년 광복절은 한반도와 전 한민들에게 대단히 큰 명절로서 이날 무대에 남한과 북한의 예술단이 함께 이뤄내는 공연은 양국을 결합시키는 작은 불씨가 될 거라며 모두에게 평화를 기원하고, 그리고 남과 북간에 이러한 평화가 더욱 피어나길 바란다라고 했다.

공연 첫 무대에는 윤민자, 강팔용 사할린 동포가수가 강원도 타령을 불러 관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행사를 위해 한국에서 국립국악원 예술단24명과 조선문화국에서 통일음악단 14명이 사할린을 방문했다.

먼저 국립국악원 예술단은 '서도소리'(황해도와 평안도 지방에서 전승되는 민요나 잡가)를 느린 듯 흥겨운 타령에 이어 '판굿(풍물놀이)'과 '진도북춤'을 신명나게 연주하여 흥을 돋우었다. 남측이 전통 음악을 했다면 북측 통일음악단은 민요와 대중 노래 위주로 공연했다.

통일음악단(단장 조승권)은 <민족끼리>라는 주제로 공연했다. 가수들은 무대에 오르기 전부터 힘찬 전주곡을 울리며 '통일은 우리 민족끼리...'라는 노래를 힘차게 불렀고 '황성옛터'곡은 1세 어르신들이 자주 부르던 곡으로서 맛깔나게 여가수가 불렀다. '사랑의 깃발', '군밤타령', '무정한 그 사람' 외에도 12곡 이상과 러시아의 유명곡들 '카츄샤', '사랑의 메아리', '내 잘못일 게 뭐야' 등 곡을 불러 관객들에게 환호와 갈채를 받았다. 북측 아티스트들은 노래 외에도 장구춤과 부채춤도 함께 선보였다. 이날 공연을 지키는 관객 중 오랜만에 북조선 파견 근로자들이 꽤 많았다.

아쉽게도 이날 계획했던 <아리랑> 남북합창 무대는 성사되지 못했다. 북측이 계획에 없던 체제선전용 노래들을 불렀기 때문이라고 주최 측에서 설명했다.

1992년 '통일예술축제'에서 남북 대중가수들이 사할린에서 공연한 이후 26년 만에 만나게 되어 사실 이번 남북 예술공연단의 합동 공연에 대한 기대도 컸다.

국립국악원의 임재원 원장은 "남북분단 70년의 아픔을 음악으로 치유하여 한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그 기운으로 한반도의 통일이 앞당겨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국립국악원이 와서 연주를 했고, 사할린 한인들이 사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성공적인 삶을 이루며 사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뿌듯하여 박수를 안 칠 수가 없네요."라는 소회를 밝혔다.

이날 행사장을 찾은 관객들은 남과 북의 예술인들을 한 공연무대에서 볼 수 있는 것만으로 즐거웠다고 한다. 26년 만에 여는 공동 공연이라 조율이 안 되었을 수도 있지만 다음에는 남북 예술단이 현악기처럼 잘 조율되어 아름다운 하모니가 된 무대에서 울려 퍼지길 기대한다.

이날 한인문화센터 소속 <하늘>사물놀이그룹, <아리랑>무용단, 동포가수 등의 공연도 있었다.

행사장에는 공연뿐만 아니라 민속놀이, 한글 캘리그래피, 한지 공예, 아동 권투놀이 등, 다채로운 활동교실이 열리고, 한민족의 전통을 상징하는 전시 코너도 마련되어 전통의상과 돌상차림, 회갑상차림, 전통 장신구, 운강 이원술 선생의 '사할린 한인' 시를 적은 액자도 전시되었다. 활동교실과 전시 코너는 이번 주한인회 청년부(담당 박 알렉산드르)가

맡았고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는 사할린 동포작가들과 만남 자리와 임원들의 사진코너를 준비했다.

또한 키르기즈의 전통음식 맛보기, 한식 코너가 마련되어 시민들은 자녀들과 또는 손주들과 함께 행사장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날 비빔밥 축제도 펼쳐졌는데 여기에 4 팀(아니와 한인회, 홈스크 한인회, 코르사코브 한인회, 유즈노사할린스크 <벤토>카페가 경쟁하여 1등은 홈스크 한인회(회장 박영순)가 했다고 전해졌다.

역사박물관 앞 테라스에서는 새고려신문사 이예식 기자의

사진전이 열려 이미 사할린 한인의 역사로 남은 한인 1세들의 애환이 느껴지는 모습들이 전시되었다.

태권도, 킥복싱 등 무술대회도 펼쳐지고 관객들은 무엇보다 전통적인 민족 씨름에 호기심을 보였다. 이날 40대의 동포 춘 알렉세이 씨는 씨름에서 대상으로 2



개월 된 송아지를 받았다. 송아지는 주민족연합회에서 마련했다.

이번 <우정의 날>행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사할린주 정부, 시행정부를 비롯한 많은 단체와 회사, 개인이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취재: 글/박혜신, 배순신, 사진/이예식)

토마리, 국립국악원 아티스트들의 빛난 공연에 감동

지난 19일(일) 토마리에서 광복 73주년, 남부사할린과 쿠릴열도 해방 73주년 행사가 진행되었다.

토마리 시장과 시노인회 회장의 초청으로 이 행사를 사할린주한인회 박순옥 회장과 한국 국립국악원 예술가들이 찾았다.

이날 광장에 모인 수백 명의 관객들을 엘레나 클레피코와 부시장, 오철호 토마리 노인회 회장 등이 환영했다. 오철호 어르신은 "영광이 빛나는 금일 우리 모국의 광복 7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모국은 기나긴 세월 36년 동안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로 시달리다가 1945년 8월 15일에 애국투사들이 연합군과 소련군의 도움으로 광복을 하였습니다. 광복을 맞이한 이후 우리 모국은 유성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광복 73주년을 맞이하신 여러분들에게 앞으로도 매 가정에는 큰 행복이 가득하고 무병장수하시어 하시는 일에서 대성과를 거두시길 기원한다."고 했다.

광복 기념행사의 가장 밝은 순간은 국립국악원 아티스트들이 공연이었다. 이날 이들은 아리랑, 청춘가, 도라지, 사설난봉가, 진도북춤과 판곡으로 토마리 주민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공연을 본 후 오철호 어르신은 "며



나면 섬의 시골 마을까지 국립국악원이 와주어 모국이 우리를 잊지 않는데 대해 너무 고맙고 감사했다. 또 와준다면 3년을 더 살아보겠다"고 소감을 표명했다.

이날 토마리 한인회에서 국수와 고사리, 머위 등 한식 나물 반찬, 샤슬리크(꼬치 고기구이)을 준비하여 한 상을 차려놓았다.

토마리 한인회장 김 스타니슬라브는 국립국악원 예술단 공연으로 이날 행사가 빛났다고 했다.

(본사 기자)

사할린 한인, 그들은 누구인가

최경옥(영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전호의 계속)

1) 영주귀국 대상자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중에 KBS 다큐세상(2018년 8월 13일, 저녁 11시 40분 방송)에서 사할린 한인들의 생활상을 사진작가가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프로에서는 영주귀국자들에 대한 어떠한 문제점을 다루지는 않고, 단지 한국 의료진들이 아픈 사할린 한인들을 치료하고 도와주는 상황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부분은 아쉬움이 남았다.

사할린 모국방문 사업은 앞에서의 '사할린잔류자 귀환소송'등의 영향으로, 한국으로 영주귀국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면서, 1989년 7월, 한일 양국적십자사가 '사할린 거주 한국인 지원 공동사업체 협정서'에 서명하고, 이러한 일을 추진함에 있어 드는 경비는 일본 정부가 그 예산을 부담하기로 하면서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인도적 차원에서 적십자를 통하여 지원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할 것이다. 여하튼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한국 정부는 '한.소(사할린)간 이산가족재회 사무처리규정' 및 '사할린교포 영주귀국 사무처리지침'-법이 아닌 지침으로 규정하여 외교적 문제를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에 근거하여 대한적십자사가 1990년 1월 3일부터 정식으로 정부로부터 이 업무를 위임받아 담당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모국방문 사업부터 시작하여 영주귀국 사업은 199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 영주귀국대상자 선정기준(대한적십자사)
1.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사할린으로 이주 또는 사할린에서 출생한 자(1993년부터 제한)
* 2008년부터 2세 가족 중 1명 포함(1세와 혼인한 배우자, 장애인 자녀도 포함)
2. 러시아 국적 또는 무국적자
3. 고령자, 무자녀 또는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

4. 정신적 또는 전염성 질환이 없는 자
5. 지역구분없이 2인 연령을 합산한 고령자 우선

2)영주귀국대상자 선정기준의 문제점

우선 영주귀국이란 일본 식민지 지배기간인 1930년대부터 후반부터 강제징용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하여 2차 대전 이후에도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가 한국으로 귀환하는 경우를 일컫는 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제시하는 이와 같은 조건은 참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1번의 조건은 1993년 이전까지는 이와 같은 조건을 붙이지 않았으나, 신청자가 대거 몰리자 이와 같은 조건이 추가되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조건은 형제와 부모와 자식들 간에도 이산가족을 만들고 있으며, 이 부분은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영주귀국 대상이 되고, 동년 9월에 태어난 동생은 그 대상이 될 수 없어 형제간에도 이산가족을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들은 지금이라도 완화하여 희망하는 1/2세대의 완전한 영주귀국이라도 완성하여야 할 것이다. 2번의 조건은 북한 국적자, 일본 국적자 등이 배제되어 있다. 앞에서 보았듯이 그 당시에는 북한 국적을 가지는 것이 순전히 자발적인 것이 아니었으며, 때로는 북한 국적이라도 있으면 더 빨리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북한에 대학공부를 하기 위하여 가기도 하고, 때로는 강제로 추방당하여 북한으로 가기도 한 사실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황이다. 3번의 조건은 노동력 없는 고령자, 또는 자녀가 없거나 혼자 사는 경우만을 기준으로 하여, 심지어 일부러 이혼을 하고 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4번의 경우는 비인권적인 기준이다.

(7면에 계속)

이 모 저 모

유즈노사할린스크 '승리' 종합기념 박물관에서 <추모관> 건립

'승리' 종합기념박물관에 또 하나의 <추모관>이라는 전시관이 건립된다. 주정부 조달센터는 건립 시공에1340만 루블리를 책정, 공사계약 입찰을 공고했다.

전시관에는 <성화>, <불멸의 연대>와 <추모의 벽> 종합컴퓨터장비와 실행프로그램이 설치된다.

그중에 성화는 시물레이션으로 소개되고 전시관 입구 맞은편 벽면에 가상의 기념 받침대에서 타는 불꽃이 별 모양으로 투사된다. 불꽃에 다가갈수록 높아지는 배경음도 시스템에 도입된다.

<불멸의 연대> 투영시스템으로 박물관 관람객들이 가져온 제2차 세계대전 참전자들의 사진 전시가 조성된다. 사진을 디지털로 변환시켜 화면으로 출력하기 위해 천장 부착형 실물 화상기를 이용하게 된다.

시공자들은 방의 벽 전면에 스텐구조와 석고보드로 <추모의 벽>을 건설할 계획이다. 벽에는 사할린에서 징집되어 대조국전쟁과 국지전쟁에서 전사한 군인들, 사할린에 거주했던 제2차 세계 대전 참전자와 참전노병들에 대한 정보들이 나오게 된다. 뿐만 아니라 종합 시스템에 유즈노사할린스크 공격 작전과 JL-19 승무원, 쿠릴해변 상륙 작전과 1904-1905년간 러일 전쟁에 대한 자료도 포함할 계획이다.

계약서의 조건에 따라 <추모관> 공사기간은 12월 10일까지다.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м музейно-мемориальном комплексе "Победа" появится "Зал памяти"

В музейно-мемориальном комплексе "Победа" появится еще одна экспозиция под названием "Зал памяти". Областной центр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закупок объявил тендер на выполнение работ по ее созданию с начальной ценой контракта 13,4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В состав экспозиции войдут программно-аппаратные комплексы "Вечный огонь", "Бессмертный полк" и "Стена памяти".

Первый из них представит собой имитацию Вечного огня. На участок стены напротив входа в экспозицию будет проецироваться горящее пламя на виртуальном постаменте в виде звезды. В систему войдет звуковое сопровождение, усиливающееся при приближении к огню.

Проекционная система "Бессмертный полк" позволит организовать демонстрацию печатных фотографий участников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принесенных посетителями музея. Для их оцифровки и последующего вывода на экран будет использоваться документ-камера потолочного исполнения.

"Стену памяти" исполнители выстроят по периметру помещения из стального профиля и листов гипсокартона. На ней будет отображаться информация о сахалинцах-призывниках, погибших на фронтах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и в локальных конфликтах, о проживавших на Сахалине ветеранах и участниках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Также в комплекс войдут сведения о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наступательной операции и экипаже JL-19, Курильской десантной операции и Русско-японской войне 1904-1905 годов.

По условиям контракта, "Зал памяти" должен быть установлен до 10 декабря.

유즈노사할린스크, 18 쌍 합동 결혼식 거행

2018년8월 18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제1회 합

동결혼식이 진행되었다. 8이란 숫자가 3번 반복되는 주술적인 의미가 있는 날짜에 남녀45쌍이 합동결혼식을 거행하기로 했다. 그중에서 18쌍은 신분등록사무소의 제안을 받아들여 합동결혼식에 참여했고 나머지 27쌍은 주정부 건물 내 예식장에서 근엄한 분위기 속에 혼인식을 치렀다.

왈레리아와 알렉산드르 바사르긴 신혼부부는 "신부도 아름답고 신랑도 멋있고 날짜도 끝내준다. 우리 모두 순발력이 있고 도전적인, 진짜 스타들이다. 세 개의 8은 영원이며, 희귀하여 그 어떤 효력을 줄 것이다. 신속한 결정으로 바로 이날을 결혼식 날로 잡았다. 플래시몹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알고 이날 결혼하기로 했다."라고 얘기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 있어 45쌍 결혼은 역대 최고기록으로 2017년 7월 7일에 주중앙도시에서 결혼에 대한 관심도는 낮았었다. 오늘 합동결혼식은 첫 번째 공식적인 대규모 행사다."라고 신분등록사무소 소장인 스웨틀라나 고보로보가 덧붙였다.

잊지 못할 추억과 언론 대표들의 관심 말고도 시장 권한 대행인 나탈리아 쿠프리나는 새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민이 출산되길 기원하며 신혼부부들에게 주 산부인과센터의 무료검진 이용권을 수여하여 이들 부부들에게는 포상이 되었다. 예식 후 신혼부부들은 왈츠에 맞춰 춤을 추었다.

근래에 들어 러시아에서는 '운 좋은 날짜' - 동일한 숫자가 반복되는 날짜 - 에 합동 결혼식을 거행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가고 있다. 올해 8월 18일에 모스크바에서는 1200쌍 이상이 결혼을 결정했다.

(8면에 계속)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отметили Праздник дружбы

18 августа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отметили Праздник дружбы. На площади перед историческим парком "Россия — моя история" собрались представители не только корейской, но и других диаспор.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ость праздника объясняется просто: корейская культура давно стала неотъемлемой частью сахалинской, а поскольку остров объединяет множество народностей, обособиться и отгородиться уже очень сложно, да и ни к чему.



ПРАЗДНИК ДРУЖБЫ Ожного Сахалина, Курил, Корейск

Именно о взаимопроникновении традиций — культурологических, кулинарных и других — говорили со сцены все, кто пришел поздравить собравшихся с 73-й годовщиной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Южного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бласти и города, депутаты, общественники желали гостям мероприятия крепкого здоровья и мирного неба над головой.

После речей зазвучали песни. Организаторы подготовили большую культурную программу с участием артистов КНДР,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и 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ллективов. Одним из самых красочных стало выступление барабанщиков (артисты Национального центра традиционной музык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учащиеся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ДШИ «Этнос»), которые открыли празднество, прошествовав от кафедрального собора Рождества Христова до исторического парка.

Фестиваль "Бибимбап", ярмарка национальных блюд с приоткрыванием некоторых кулинарных секретов, мастер-класс "Цвета и символы долголетия в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е", фестиваль боевых искусств, каллиграфия и роспись по ткани, корейская национальная борьба ссирым с главным призом в виде двухмесячного теленка — все это компактно уместилось на небольшой площадке перед музеем "Россия — моя история". Для пожилых гостей поставили стулья, многие пришли семьями, а некоторые даже взяли с собой домашних питомцев, наряженных в подобию национальной одежды.

Дополняли картину две выставки: фотографий Ли Е Сика, многие из которых не могут не вызвать сильные эмоции, поскольку связаны с расставанием и возвращением на Родину, и рисунков учеников корейской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школы, в которых, напротив, отражен однозначно яркий и радостный мир.

(Наталья Голубкова, Сахком)
(фото: Ли Е Сик)

Южнокорейские спортсмены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в экстрим гонке хард-эндуро на Сахалине

С 24 по 26 августа на Сахалине пройдут гонки в дисциплине хард-эндуро No Place to Run. Для участия заявили спортсмены с разных уголков России, а также 11 райдеров из Южной Кореи, в их числе два чемпиона страны.

Гонка станет первым спортивным мероприятием программы фестиваля "Крылья Сахалина", запланированного на 24 и 25 числа.

Старт пролога No Place to Run назначен на 13 часов 24 августа — в это время спортсмены выйдут на первые тренировочные заезды. Финальная часть квалификации начнется около 16 часов. Место проведения спортивного события — аэродром Пушистый, сообщили организаторы.

На основании результатов пролога спортсмены займут места на старте двух внедорожных дней — участникам No Place to Run за субботу и воскресенье придется преодолеть триста километров лесных троп, топких болот и подготовленных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спец-частков.

Южнокорейские спортсмены поражены красотой сахалинской природы, чистым воздухом и радушным приемом сахалинцев. Для них это трудные соревнования. Но они надеются дойти до финиша в полном составе, что очень непросто, учитывая сложность сахалинских маршрутов.

Виктория ЦОЙ

На Сахалине стартует 8-ой СМКФ «Край света»

Как известно, с 24 по 31 августа на Сахалине пройдет 8 Сахалински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кинофестиваль «Край света».

В этом году программа включает более 120 фильмов — это самая большая программа фестиваля за всю его историю. В нее вошли основной конкурс, а также хорошо знакомые сахалинцам программы "Самое главное", "Как научиться смотреть кино", "Сахалинский след" (расширенная версия прошлогодней программы сахалинских кинематографистов) и "Соседи/Друзья".

- "В программу "Соседи/Друзья" включены фильмы, произведенные в странах Азиатского региона (Китай, Южная Корея, Япония и др.), а особое место занимают в ней картины, созданные кинематографистами, уже ставшими друзьями Сахалинского кинофестиваля («Ночной бог» Адильхана Ержанова, «Свинья» Мани Хагиву). И хотя азиатский акцент с каждым годом на нашем фестивале все меньше, мы уже не считаем, что обязательно должны иметь в конкурсе японское или китайское кино — за Азией мы, конечно же, пристально следим. В этом году у нас будет «Таксист», один из самых кассовых корейских фильмов в истории. И будет настоящий китайский блокбастер — «Операция в Красном море», снял его гонконгский режиссер Данте Лам. В России парадоксальным образом никто этот фильм не купил и даже ни разу не показал, хотя сборы его приближаются к сборам «Титаника» и составляют около шести миллионов долларов», — сообщил программный директор СМКФ "Край света" Алексей Медведев.

"Было / не было" — так в этом году называется традиционная документальная СМКФ "Край света". На этот раз она посвящена фильмам-расследованиям, фильмам-разоблачениям и фильмам-открытиям, в которых скрытое прошлое на наших глазах превращается в актуальное настоящее. Среди хитов нынешнего сезона, участников и призеров фестивалей Сандэнс, Берлинале, Шеффилд Док, и других, особое место в

программе занимает фильм «Голая армия императора идет вперед» (1987) японского режиссера Кадзуо Хары. Он лично представит картину на фестивале — это уникальная возможность поговорить с японским классиком об истории создания картины и истоках жанра в целом.

Анимационная программа фестиваля состоит из пяти частей — это программы "Азиатская анимация для взрослых", "Польская анимация для взрослых", всеми любимая программа "Миядзаке и другие", и, наконец, программа российской анимации, разделенная на две части — "Вдоль и поперек" (для взрослых) и "А как наши космонавты" (для детей).

В этом году на фестивале появились и совершенно новые программы. Одной из самых интересных обещает стать программа "Фильмы жури", в которую вошли 6 картин. Каждый член жури лично представит публике свою работу. Председательница жури, режиссер из Ирана Таминех Милани покажет свой фильм "Две женщины" (1999), режиссер Алексей Попогребский — фильм "Как я провел этим ле-

том" (2010, два "Серебряных медведя" на фестивале в Берлине), режиссер Алексей Герман-младший — картину "Довлатов" (2018, "Серебряный медведь" на фестивале в Берлине), актриса Мария Шукшина — фильм Сергея Снежкина "Похороните меня за плинтусом" (2008, две премии "Ника" — Светлане Крючковой и Марии Шукшиной), а сценаристка из Кореи О Чжун Ми — фильм Ли Чан Дона "Пылающий" (2018, приз ФИПРЕССИ Каннского фестиваля) и свою режиссерскую короткометражную работу "Мистер Купер" (2015).

Также впервые в фестивальную программу включена ретроспектива классического кино — в честь 100-летия Ингмара Бергмана зрители увидят семь фильмов великого шведского режиссера, а также документальную биографическую картину Яне Магнуссон "Бергман".

Впервые на фестивале будет представлена секция спортивного кино "Не только футбол" — в кинотеатре под открытым небом на площади можно будет увидеть такие хиты как "Тренер" Даниила Козловского или оscarовского номинанта этого года, фильм "Тоня против всех" с Марго Робби в главной роли.

Фильмом открытия фестиваля также станет картина "Виновный" датчанина Густава Меллера — картина, получившая призы зрителей на фестивалях в Сандэнсе и Роттердаме.

Церемония открытия состоится 24 августа в 19.15 в Чехов-центре. Прохождение гостей и участников фестиваля по красной дорожке в 18.30,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центре фестиваля.

Праздник удался

17 августа 2018 года Углегорское отделение РООСК отметило День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от японской оккупации. Почётными гостями ста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округа и пожилые корейцы — представители первого поколения.

Очень отраднo, что этот День стал традиционным праздником Дружбы народов.

Гостей поздравила начальник отдела по культуре, спорту, делам молодёжи и связям с общественностью Ременикова О.В. От имен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округа она вручила награды за многолетний труд, за большой вклад в сохранение и развитие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уважаемым представителям 1 поколения Дё Ён Дя (почетная грамота) и Дю Гиль Дя (благодарственное письмо).

Правлению Углегор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был вручен поздравительный адрес и ценный подарок.

Поздравления с юбилеем супружеской жизни от начальника ЗАГСа Яковлевой Ю.В. получили семейные пары: Дё Ён Де и Хан Чан Сун; Син Хе Ну и Нам Бок Сун; Мин Ен Сук и Ким Ок Дя; Тё Ман Сек и Ом Ен Бун.

Эти люди, соединив свои судьбы, с честью выдержали все жизненные испытания, сумели пронести через годы любовь, уважение и доверие друг другу.

В небольшом концерте участвовали школа искусств «Гармония», пресвитерианская церковь г. Углегорска и учащиеся корейского класса.

Гвоздём и украшением вечера было выступление солиста Бак Дзи Сон (Владимира). А пес-



ня «Далёкая, далёкая Корея», о чаяниях, горе, разлуке, тоске и годах ожиданий встречи с Родиной, не оставила равнодушным в зале никого.

Мы благодарны спонсорам и желаем им успехов и процветания!

Любовь КАН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В горах Кымгансан началась встреча разделённых семей Юга и Севера Кореи

20 августа в горах Кымгансан на территории КНДР начался первый этап 21-го раунда встреч разделённых семей Юга и Севера Кореи. Утром этого дня 89 южнокорейских участников встречи и сопровождающие их лица –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360 человек - на 30 автобусах пересекли границу через пропускной пункт в уезде Косон-гун провинции Канвондо и прибыли в Кымгансан. Возраст 33-х южнокорейских участников встреч превышает 90 лет, а самый старший из них 101-летний Пэк Сон Гю. Он встречается со своей племянницей и её внуками. Лишь семеро южнокорейцев встречаются со своими детьми, живущими на Севере, а порядка 20 человек – с братьями и сёстрами. Среди участников встреч – военнопленные, а также оказавшиеся по другую сторону межкорейской границы во время войны. В первый день были проведены два раунда встреч, а вечером состоялся торжественный ужин, в котором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глава делегации КНДР Пак Ён Иль и председатель Красного креста РК Пак Кён Со..

Встречи проводятся в два этапа по три дня каждый: с 20 по 22 и с 24 по 26 августа. Каждый из участников сможет пообщаться со своими родными, проживающими по другую сторону границы, 6 раз,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11 часов в течение трёх дней.

Впервые за историю проведения таких встреч семьи смогли пообщаться лично в непринуждённой обстановке. В среду состоялась заключительная встреча и совместный обед, после чего южнокорейские участники вернулись домой, а в пятницу в Кымгансан придут участники второго раунда встреч.

Министерство по вопросам воссоединения настроено на регуляр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Севером

Министерство по вопросам воссоединения РК намерено начать переговоры о регулярном проведении встреч разделённых семей. Согласно отчёту, представленному 21 августа парламентским комитетом по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е и воссоединению, этот и другие вопросы планируется обсудить во время следующей рабочей встречи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Красного креста Юга и Севера.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среди 56 тысяч человек, от которых поступили заявки о поиске членов разделённых семей, 85% составляют пожилые люди старше 70 лет. Из-за преклонного возраста членов разделённых семей во время встреч, проходящих в горах Кымгансан, лишь семь случаев - это встречи детей и родителей. В министерстве также подчеркнули, что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начнутся рабочие переговоры по поводу предстоящего межкорейского саммита, запланированного на сентябрь. Кроме того, до конца августа возможно открытие межкорейского пункта связи в индустриальном комплексе Кэсон. Он будет работать 24 часа в сутки и в будущем может стать знаковым местом для обеих стран, поясн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Пассажиропоток аэропорта Инчхон достиг рекордной отметки

В сезон летних отпусков пассажиропоток аэропорта Инчхон достиг рекордной отметки – 197.036 человек в сутки. Эти данные были зафиксированы в самый высокий летний сезон с 21 июля по 19 августа. В прошлом году аналогичный показатель составил 183.043 человека в сутки, то есть на 7,6% меньше по сравнению с этим годом. В зимний период этого года в аэропорту было также зафиксировано меньшее количество пассажиров – 191.726 человек в сутки. Резкий рост пассажиропотока в летнее время связан с увеличением количества туристов из Китая и Японии. По данным миграционной службы Инчхонского аэропорта, в указанный период РК посетили 1.679.439 иностранцев, из них 32% пришлось на китайцев, 17% - на японцев, 8,4% - на американцев, 5,7% - на тайваньцев. При этом, по сравнению с аналогичным периодом прошлого года, прирост туристов из Китая составил 30,6%, из Японии - на 47,2%. В связи с увеличением пассажиропотока и указанием президента РК Мун Чжэ Ина аэропорт рассматривает вопрос об открытии магазинов беспошлинной торговли и при въезде в страну.

Фильм «Свидетель» (목격자) занял первое место по кассовым сборам

Фильм «Свидетель» (목격자) режиссёра Чо Гю Чжана, вышедший в прокат 15 августа, остаётся лидером по кассовым сборам. Как сообщили в Корейском комитете кинематографии, с 15 по 18 августа фильм посмотрели более 1 млн человек. Только за один день 19 августа его посмотрели 300 тыс. человек.

(RKI)

Наших в городе много?

Каждый год летом выходит ежегодник корейской Иммиграционной службы (2017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연보), где приводится иммиграционная статистика за предшествующий год. Сейчас появился ежегодник за 2017 год, который я, собственно, и смотрю – делая при этом записи в ЖК.

В 2017 в Корею находилось 2 миллиона 180 тысяч иностранцев (точная цифра – 2.180.498 человек). Таким образом, иностранцы составляют примерно 4% всего населения страны. В указанное выше число включены и нелегалы – благо, их посчитать довольно легко: по географическим причинам на лодочке в Южную Корею особо не приплывёшь, и границу тоже особо нелегально не перейдёшь (может и есть, но – совсем единичные случаи). Нелегалов в 2017 году насчитали 251 тысячу человек, или 11,5% от общего числа иностранцев.

И доля иностранцев, и их общее количество растут быстро. Пять лет назад, например, то есть в 2013 году, иностранцев в Корею проживало 1 миллион 576 тысяч.

Из указанного выше числа примерно 135 тысяч составляют студенты, а 50 тысяч – иностранные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е специалисты (инженеры, учёные, менеджеры). Ещё 150 тысяч – жёны иностранцев, не принявшие пока корейского гражданства (в основном из Китая и

Вьетнама. Однако большинство южнокорейских иностранцев – это приехавшие за длинной воной гастарбайтеры, которые составляют примерно две трети от общего числа корейских иностранцев. Кстати, почти все из четверти миллиона нелегалов – это именно гастарбайтеры.

Если смотреть расклад по странам, то в качестве поставщика иностранцев в Корею лидирует (и уже давно) Китай, на который стабильно приходится около половины всех живущих в РК иностранцев. В 2017 граждан КНР в Южной Корею было миллион человек (точнее, 1.018.074 человека), из общего числа иностранцев в 2,18 миллионов. Правда, тут есть немаловажная тонкость – среди китайцев 680 тысяч, или две трети, составляют этнические корейцы, “чосончжок” или, если те же иероглифы читать в северокитайском произношении, “чаосьяньцзу” (조선족 / 朝鮮族). Они активно ездят в Корею на заработки, и сейчас их в Корею 680 тысяч. На втором месте после Китая, но с огромным отрывом, идёт Вьетнам – вьетнамцев насчитывается 170 тысяч. На третьем месте, неожиданно, оказался Таиланд, тайцев в Корею насчитали 153 тысячи, а на четвёртом месте находятся США – американцев 143 тысячи, но среди них много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граждан США.

На пятом месте неожиданно оказался Узбекистан, 63 тысячи человек (почти поголовно – гастарбайтеры). Далее, в порядке убывания, следуют Филиппины, Япония, Камбоджа, Монголия, Индонезия, и, наконец, Россия, которая находится на 11 месте в списке. Всего граждан РФ в Южной Корею сейчас проживает 45 тысяч. Это заметное увеличение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едшествующими годами: много лет, примерно с 2005 года, число россиян в Корею колебалось около отметки 10-11 тысяч. Тенденция к росту – и быстро – наметилась только после 2014 года. Полагаю, что дело тут в эконом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и и изменении курса рубля.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в Корею опять появились российские гастарбайтеры, которых тут не было в “жирные нулевые” (из районов Сибири 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основном).

Из других постсоветских стран в “первую двадчатку” попал ещё Казахстан. Казахстан находится на 17-м месте, 22 тысячи человек.

Так что, если учесть и не попавшие в двадчатку страны, получается, что выходцев из бывшего СССР сейчас в Корею примерно 140-150 тысяч человек, или где-то 7% всех иностранцев, находящихся в стране.

(Андрей Ланьков, Живой журнал)

С 2022 года вступит в силу новая система поступления в вузы

17 августа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разования РК представило проект реформирования системы поступления в высшие учебные заведения, который вступит в силу с 2022 года. Согласно проекту, процент абитуриентов, поступающих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еди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экзамена, рекомендовано повысить до 30% и выше. Однако данная рекомендация не распространяется в обязательном порядке на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е, промышленные и дистанционные вузы, а также на те учебные заведения, которые набирают в рамках внепланового поступления более 30% студентов. Кроме того, теперь помимо английского языка и истории Кореи по системе абсолютной оценки будут оцениваться также второй иностранный язык и иероглифика. Реформы предполагают также введение мер, нацеленных на повышение надёжности и справедливости оценки студентов при поступлении в ВУЗ. Так, теперь в графу о достижениях можно будет заносить лишь одно достижение за семестр, при этом написание небольших научных статей учитываться больше не будет. Кроме того, в школах будут установлены камеры видеонаблюдения, чтобы предотвратить утечку информации об экзаменационных вопросах.

(KBS WORLD)

Центр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К на Сахалине объявляет набор слушателей на курсы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1. Срок подачи заявления: 13.08.2018 (пн) - 31.18.18 (пт) 18:00
2. Торжественное открытие: 07.09.2018 (пт) в 17:00,
3. Начало занятий: 10.09.2018 (пн)
4. Подача заявления: через сайт Центра <http://www.sakhalinedu.com>. Или заполнить заявление лично в Центре, приложив фотографию.
5. Справки по телефону 50-56-96 (центр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К).

<2018년 제2학기 한국어 및 한국문화 강의 신청> 사할린 한국교육원

2018년 제2학기 한국어 및 한국문화 강의 신청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신청기간: 2018.8.13(월) ~ 8.31(금) 18:00
2. 개강식: 2018.9.7(금) 17:00, 교육원 대강당
3. 수업 시작: 2018.9.10(월)
4. 신청방법: 신청은 <http://www.sakhalinedu.com> 사할린한국교육원 사이트에서 할 수 있음. 또는 교육원에서 서면신청서 작성, 사진을 붙여 교육원에 제출.
5. 문의: 교육원 전화 50-56-96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е полугодие 2018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79 руб. 38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53740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3면의 계속)

자기 자식을 병이 있다고 버리는 경우나 마찬가지이며, 5번의 조건도 한 방에 2인이 거주하는 조건으로, 그 당시 사할린 신문에는 혼인 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들이 비밀비재하였다고 한다. 참으로 비인격적인 기준들이다. 생면부지의 사람들을 한 방에서 거주하게 함으로써 독립적이고 자유스런 삶은 추구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들임에도 불구하고, 고국을 향한 날개짓은 이러한 악조건조차도 감수하였던 것이다. 지금이라도 이러한 주거 조건의 생활방식의 시정을 촉구한다. 그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1번의 조건은 처음에는 전혀 포함되지 않은 조건이고, 그 대상도 제한하지 않았으나, 1993년부터 신청자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고정화되어 버린 것이다. 이 또한 완화하여 지금이라도 영주귀국을 원하는 1/2세에 한하여는 이 조건을 철회하여야 할 것이다. 단지 경제적인 조건이 문제라면 그 조건을 축소하면 될 것이고, 외교적인 문제가 있다면 한국 정부는 이제는 능동적으로 협상을 재개하여야 할 것이다. 여전히 주변국가들을 고려(?)하는 외교자세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2015년 말까지 일본 정부의 지원으로 받아들이는 사업은 종료되고, 그 때까지 총 4,368명이 귀국하였고, 사망 및 역귀국자를 합치면 현재 국내 체류 인원은 3,035명 정도라고 한다. 2016년부터는 한국 정부 단독으로 매년 20명 내외를 영주귀국자로 받아들이고 있다.

(3) 영주귀국자의 정체성

현재 한국으로 영주귀국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령화라는 조건(65세 이상)으로 복수국적들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첫째, 그들은 때로는 한국 사람, 때로는 러시아 사람인 셈이다. 그러다 보니 이들의 사고는 한 국가를

사할린 한인, 그들은 누구인가

최경욱(영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초월한 초국가주의자가 된 것이다. 사할린에서도 세사지내고, 명절 음식을 챙기고, 혼례식 전에 상견례하는 것 등도 그대로 아니 오히려 더 한국적인 생활방식도 남아있다. 영주귀국한 사할린 한인들은 사할린에 있는 손녀/손자들과 휴대폰 등으로 직접 대면도 하면서 교류하는 초국가적인 생활도 하고 있으나, 이제는 점점 고령화되어 가면서 외로움을 타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문제도 있다.

또한 이들의 국외 체류기간은 지원사업에서 3개월(90일)이내여서 러시아에 갔다가도 그 기간 내에 돌아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원 상황이 중단되게 된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체류기간의 제한을 완화해달라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들이 한국으로 입국할 때는 한국 여권, 러시아에 입국할 때는 러시아 여권들을 사용한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한국의 출입국관리소에서도 이들의 출입국관리가 어렵다고도 한다.

둘째, 영주귀국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러시아에서 연금생활자들이다. 그런데 그들이 한국에 오면 기초수급자가 되는 것이다. 연금생활자로서의 다양한 경력들은 한국에 와서는 아무런 용도가 없어지는 것이다. 단지 무료하게 생활만을 유지하여야 하는 그들 나름대로의 고통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한국 담당자들이 서로의 문화교류라도 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주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또한 기초수급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한국에서 다른 일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그들을 기초수급자라는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것

으로, 이들에게 안락하고 그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은 없는 것이다. 이러한 기초수급자 지원방식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심지어 심심하기도 하고 생활비에 보태려고 신문배달이라도 하려고 하여도 그것을 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하고, 그 댓가를 반반으로 나누어 가진다는 서글픈 이야기를 듣기도 한다.

또한 기초수급자의 수입으로만 살 수가 없어 그들이 러시아에서 받는 연금을 가져와 생활비에 보태서 사용한다고도 한다.

셋째, 그들이 한 곳에 모여사는 방식이 또 다른 섬이 되는 것이다. 한국 속에서 사할린이라는 외로운 섬이 하나 더 생겨난 것이다. 그들끼리 같이 모여 살아 서로를 토닥이는 부분도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폐쇄된 공간이 되어 한국인들과 교류가 없는 외딴 섬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주거형태의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70주년이 넘는 광복절을 앞두고, 아직도 광복절을 느끼지 못하는 그들에게서, 불과 영주귀국자 4,000여명을 영주귀국시켜 놓고, 그것도 일본의 책임이란 이름으로 일본 적십자의 도움으로 받아들이고, 여태까지 한국 정부는 국가를 상실하였던 국민에 대한 책임의식을 적극적으로 느끼지 않고 있는 것 같아, 아직도 이산가족이 되어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참으로 고개숙여 미안할 뿐이다.

이제 청와대에서도 이번에 재외동포 담당관을 신설하였다고 하니, 재외동포들은 적극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바를 요청하여 보시길.... 보채는 아기에게 젖 한번 더 준다고 하던가!

(계속)

제8회 사할린국제영화제 8월 24일 개막

올해도 한국 인기영화 상영

(1면의 계속)

올해 처음으로 <심사위원들의 영화>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이에 심사위원들은 직접 제작한 작품을 소개하게 된다. 한국의 오정미 작가는 두 작품(칸 영화제에서 국제영화비평가연맹상을 받은 영화 <버닝>(오정미 각본, 이창동 감독)와 단편영화 <미스터 쿠파>(오정미 감독))을 소개한다.

이번 영화제에서도 사할린 관련 다큐멘터리를 포함한 영화 프로그램도 있다. 아이들과 어른들을 위한 애니메이션 영화 프로그램, <있었다/ 아니었다>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스포츠 관련 영화도 소개된다.

올해 스웨덴 출신의 임마르 베리만 영화계 거장

감독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사할린영화제에서는 임마르 베리만 감독의 영화 7편과 다큐영화 <베리만>이 상영된다고 알려졌다. 전과 같이 영화들은 체호브센터, <옥차브리>영화관, <콥소몰레츠>영화관에서 상영되며 주정부 앞 야외 극장에서도 밤마다 러시아를 비롯한 다양한 해외 영화들을 즐길 수 있다.

올해도 많은 마스터클래스와 워크샵이 펼쳐지는데 이번에 교육활동프로그램은 학교 학생들 위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풍부한 프로그램과 유명 감독들, 배우들로 사할린의 문화생활을 혼드는 <세계의 끝>국제영화제 기대가 된다.

(배순신 기자)

모국서 직업연수 받는 고려인 청년들, 국내 거주 고려인 대상 미용 봉사 펼쳐

러시아·CIS 지역 초청 직업연수 참가자들,
18일 안산 고려인마을서 헤어·메이크업 봉사

모국에서 미용을 배우고 있는 고려인 연수생 청년들이 경기도 안산의 고려인 마을에서 미용 봉사활동을 펼쳤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이 실시하는 '러시아·CIS지역 고려인 초청 직업연수' 참가자들이 미용 봉사활동을 위해 지난 18일(토)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고려인 마을을 방문했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가한 21명의 뷰티 전공 고려인 연수생과 멘토인 국내 학생 등 35명은 안산 고려인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헤어 컷팅과 염색, 메이크업 등 미용봉사를 하며 그동안 배운 실력을 선보였다.

봉사에 참여한 연수생 정다리아(24)는 "지난 두 달간 배운 기술을 활용해 같은 고려인 동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면서, "이 곳 고려인분들이 반겨주셔서 가족을 만난 것처럼 즐거웠고, 카자흐스탄에 돌아간 후에도 지금처럼 고려인들과 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마련하고 싶다"고 말했다.

'러시아·CIS지역 고려인 초청 직업연수'는 재외동포재단이 차세대 동포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주류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오는 9월 12일까지 인천재능대학교에서 진행된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재외동포재단, '제20회 재외동포 문학상 수상작 선정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은 '제20회 재외동포문학상' 수상작 총 30편을 발표했다.

재외동포문학상은 재외동포들이 한글 문학창작 활동을 통해 우리글을 잊지 않도록 장려하기 위해 1999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재외동포 문학 창작의 장이다.

올해 '재외동포 문학상'은 지난 4월부터 약 2개월간 성인과 청소년 부문으로 나눠 공모를 받았으며, 51개국에서 총 1천 29편의 작품이 접수됐다.

성인 부문 대상 수상작으로 선정된 작품은 시 부문 문인기 씨(인도네시아)의 '유적에 핀 꽃', 단편소설 부문 이은영 씨(중국)의 '동아분식'와 체험수기 부문 신경화 씨(중국)의 '가방 싸는 여자'다.

중고생 부문에서는 김지영 양(중국)의 '기행'과 초등 부문의 송지나 양(중국)의 '비슷하지만 다른 중국에서의 생활'이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됐다.

한글학교 학생들의 한국어 글쓰기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한 '한글학교 특별상'은 중국 상해포동 한국주말학교와 태국 치앙마이 한글학교가 수상했다.

지난 1일과 3일 양일간 심사를 진행한 신경립 시인, 오정희 소설가, 복거일 작가 등의 14명의 심사위원들은 "다소 '재외동포' 쪽으로 기울어져 있던 천칭이 문학상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해 균형을 이룬 작품들이 많았다"며 호평했다.

단편소설을 심사한 구효서 소설가는 "오랫동안 재외동포문학상의 변화를 지켜봐온 한 사람으로서 작품들의 수준이 높아지고, 확연하고도 긴장감 있는 문학의 구조를 이룬 우수한 작품들이 등장했다"고 평했다.

재외동포 문학상 수상자 30명에게 상패와 100~300만원의 상금이, 한글학교 2곳에는 각 200만 원의 상금과 상패가 수여된다. 각 부문별 수상자 시상은 거주국 관할공관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금년 재외동포문학상 20회를 기념하여 국내에 재외동포문학을 알리기 위해 문학주간 2018(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최, 9.1~9.7)과 연계하여 재외동포문학상 스페셜 라디오 공개방송을 연다.

본 공개방송은 '재외동포문학, 독자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9월 2일(일) 오후5시부터 서울 마로니에공원 야외무대에서 열리며, 진행은 역대 재외동포문학상 수상자 출신 김은자 시인(미국)이 맡는다. 그 외 역대 심사위원 신달자 시인, 오정희 소설가, 박상우 소설가 등이 참여하여 재외동포 문학에 대해 토론하며, 벨기에 출신 재외동포 기타리스트 드니 성호가 축하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새고려신문 살리자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러시아에 사시는 분들은 이 계좌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2810750340100530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한국에서는: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190-01-021311 예금주 BYA VIKTORIYA (본사 편집부)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